

6·25전쟁과 일본

— 일본에서의 미 군사력과 기지의 전개 —

芦田 茂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1. 머리말
2. 점령기—패전에서 6·25전쟁 발발까지
3. 6·25전쟁 대응기—6·25전쟁 발발에서 미일안보조약 발효까지
4. 초기 안보조약관계기—미일안보조약 발효에서 신안보조약 발효까지
(1952년 5월~1960년 6월)
5. 맺음말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일본의 패전을 기점으로 하여, 1960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 발표까지 약 15년간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에서의 미군의 동향 및 기지변천을 6·25전쟁의 영향과 관련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발표 내용은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3개 기간으로 구분한다. 즉, ① 패전에서 6·25전쟁 발발까지(1945년 8월~1950년 6월), ② 6·25

전쟁 발발에서 미일안보조약 발효까지(1950년 7월~1952년 4월), ③ 미일안보조약 발효에서 개정된 미일안보조약 발효까지(1952년 5월~1960년 6월)이다.

본고의 중심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다. 즉, 1945년 이후 미국이 전투했던 결정적인, 그리고 새로운 양상을 지닌 6·25전쟁은 대일강화조약체결을 가속하여 미일안보조약의 내용을 규정하고, 유엔과 일본정부간의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체결되었다. 일본에서의 미 군사력 및 기지는 1950년 1월에 치스라인을 기본으로 6·25전쟁을 교훈으로 하여 안보조약 및 주둔군 지위협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여기에서는 미국에 의한 일본 점령정책, 일본의 6·25전쟁에 기여, 일본의 안보정책, 일본의 재군비 문제 등은 고찰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미군 재배치가 논의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에서 군사안정보장상의 현재적 문제 또는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의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2. 점령기-패전에서 6·25전쟁 발발까지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상황에 관해서 6·25전쟁과 관련하여 1950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945년 8월 28일 일본의 패전과 함께 미군 선발대가 아츠키 비행장에 도착한 이후 군국주의 척결, 전쟁수행능력 말살, 군대의 완전한 무장해제 및 군수산업 금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맥아더 원수를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이하는 점령군이라 함)이 일본 각지에 주둔했다. 연합군으로서 점령군의 중심은 미군이었다.

점령군 주둔을 포함한 모든 행동의 근거는 일본항복 문서 및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권한에 있었다. 일본 정부가 설립한 공적인 기관인 특별조달청

에서 점령군이 필요로 하는 물품, 서비스 취득 업무 등 점령군에 조달하는 간접통치의 관리 사무를 처리하였다.

점령목적 달성을 위하여 점령군은 구 일본군이 소유하고 사용하던 모든 재산 및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민간소유 산업체를 포함하여 접수하였다. 접수 건수는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약 4천 건, 토지 면적으로는 약 14만 ha에 이르렀다. 점령군의 병력은 1945년 최초 주둔당시 약 40만 명, 다음 해 1946년에는 반감하여 약 20만 명, 1950년 6·25전쟁 발발 전에는 약 11.5만명으로 감축되었다. 점령군 주둔 이후 군사 및 치안의 관점에서 일본 국내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으며 점령군이 부대활동을 취할 필요가 없었다.

오키나와를 포함하여 일본에는 미 육군 제8군(4개 사단) 및 독립 제29보병연대가 일본 전국 약 70개소에 전개하여 점령 업무를 수행했다. 해군이 사용한 기지는 요코스카와 사세보뿐이었다. 군정의 명령은 군 계통을 통하여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으로 지시되었으나, 요코스카만은 특별지구로서 주일 미 해군이 관장하여, 요코스카 해군기지 사령부내에 군정부대를 두고 수행하였다. 공군은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오키나와에서 혼슈 미사와까지 레이더 사이트 및 제트 전투기로 방공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항공기 지에는 각종 폭격기, 정찰기, 수송기 등을 배치해서 정찰, 공격, 수송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해·공군은 주로 각자 고유의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즉 1945년 8월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년간에 있어 점령군의 전개는 점령정책 달성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안전보장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방위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안보정책의 주안은 케년의 정치적인 봉쇄가 기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유럽방위를 주 정면으로 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소규모 군사충돌과 분쟁을 가정하여 1950년 당시에 점령군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이하 GHQ라고 함) 및 극동군사령부 예하에 각종 사령부 기구를 구성하고 각 군의 전력과 기지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것은 1950년 1월 애치슨 국무장관에 의한

‘서태평양 방위선’을 유지하는데 있었으며, 동아시아에 위치한 미 해·공군의 전개도 한반도 유사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6·25전쟁 대응기—6·25전쟁 발발에서 미일 안보조약 발효까지

이 기간은 1950년 6월 25일에서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되었던 1952년 4월 28일까지 1년 11개월이다. 이 기간중 점령군은 6·25전쟁을 수행하는 유엔군으로 변용하게 되고 미국정부는 새로운 미일관계를 모색하면서, 일본과 미국간의 안보조약, 소위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미국이 6·25전쟁에 대응하면서, 일본에서의 미군 활동은 GHQ 권한에 의해 행동하며 일본정부는 GHQ에 협력했다. 군수물자 취득 및 기지유지 및 정비 등 정부 측의 협력이 많은 부분을 특별조달청에서 수행했다.

미국정부는 6·25전쟁 발발을 계기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군사태세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즉, 이 기간은 새로운 미일관계를 설정하는 과도기로서, 미국정부는 6·25전쟁을 통해서 주일미군 및 기지전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1952년 4월 28일에 미일안보조약을 발효시켰다. 그 전까지의 재래식 전력 축소에서 예측되는 전쟁수행을 전제로 태세가 변화한 것이며, 미일안보, 행정협정을 추진하면서 미일양국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대비태세를 확정했다. 미일안보조약은 주권을 회복했던 일본이 미군주둔의 합리적 근거를 부여했다는데 최대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일본은 주권회복과 함께 제도상의 개혁은 이루지 않고 점진적인 방위력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미군의 기지전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점령군은 6·25전쟁을 수행하는 유엔군으로, 그리고 일본에 위치한 기지

는 6·25전쟁 수행을 위한 기지로 변용하여 방공을 비롯하여 방위체제를 강화하였다. GHQ 명령 하에 점령군은 군사력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토지 접수를 추진했다. 새로운 토지 접수는 주둔 초기에 접수했던 기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새로 접수한 지역은 많지 않았다. 1951년 들어, 안보조약체결 전망과 행정협정의 윤곽이 명확해지면서 기지안정화의 골격이 갖추어졌다.

GHQ에서 지상군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함에 따라, 일본에서의 미군은 일시에 감소하게 되었다. 미국은 지상군을 미 본토에서 투입하게 되었고, 일본에서의 지상군은 약 2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미 본토에서 증원된 부대는 기존 접수된 훈련장을 이용하여 각종 훈련을 실시한 후에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병창, 보급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코하마에 주일군수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해·공군을 오키나와, 큐슈, 관동지구에 집결시켜 전력을 강화했다. 공군은 방공을 강화하고, 해군은 항모를 비롯하여 해군의 한반도 전개를 위하여 모지항을 접수하였으며, 카시와 통신소(치바 현), 카미세야쿠 통신시설(카나가와 현) 등 통신소를 1950년에서 1951년에 걸쳐 약 10개소를 개설하는 등 지휘통신 기능을 강화하였고, 사세보 및 요코스카 지구를 중심으로 탄약고, 저유소 및 창고를 보강하였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과거 구일본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점령군이 이미 접수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기지정비의 대표적인 예는 아즈키 기지이다. 구 일본해군 항공기지로서 미 육군이 관리해왔던 아즈키 기지는 1950년 12월 1일부터 미 해군 아즈키 기지로서 정식으로 발족시켜 서태평양함대 기동부대인 제7함대 함재기의 일대 근거지가 되었다.

이 기간 중 고려해야 할 사항은, 미국의 군사안보정책의 대전환, 강화조약 체결, 미일안보조약 체결 등의 절차에 대한 일본의 대응, 아시아 각국의 대응, 경찰예비대의 본격적인 정비 등이다. 일본에서 미군의 기지전개는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6·25전쟁 휴전협정의 경과에 따라, 초기의 점령목적 달성에서 공산권 세력의 군사적 봉쇄에 필요한 전력 확보로 전환하여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정부는 일본에서 미군활동의 자유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안보전략의 전개에 필요한 기지의 안정적 확보를 미일안보조약에 규정하고, 주일 일본기지를 행정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조약 제1조에서 '미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을 일본국내 및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일본국은 허용하고, 이 군대는 극동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일안보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협정을 1952년 2월 28일 체결하여 미군기지의 위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오카자키 외무대신과 러스크 국무차관보와의 교환공문에서 접수재산을 축소시킬 정책이 합의되었다. 즉, ① 원칙으로서 육·공군은 도시지역 외에 주둔, 해군은 최소한의 항만지구에 집중할 것, ② 미군기지는 구일본군기지 또는 국유지로 한다는 등이다. 1952년 4월 28일 미일강화조약, 미일안보, 행정협정 발효 이전의 점령군에 의한 접수재산은 2,824건, 토지면적 13.5만 ha였으나 이후부터는 축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4. 초기 안보조약관계기-미일안보조약 발효에서 신안보조약 발효까지(1952년 5월~1960년 6월)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된 후, 점령군은 주일미군으로, 점령군의 기지는 주일미군기지로 각각 전환된다. 이 시점 이후의 기지는 '일본과 미국과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 제3조에 의거, '일본과 미군과의 안보조약 제3조에 입각한 협정'(이하 행정협정이라고 함) 제2조에서 '미국은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 제6조에 의하여 일본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이 허용 된다'고 규정되었다.

미일안보조약은 유엔군으로서 미군의 행동을 보장하고, 조약체결 시에

요시다 수상과 미 국무장관 애치슨 장관 사이에, 계속하여 유엔군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합의했다. 6·25전쟁 휴전협정 체결과 함께 1954년 2월 19일 일본과 유엔 간에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유엔군의 회원국(11개국)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주일미군기지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현재 유엔군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요코다, 요코스카, 자마, 사세보, 가테나, 후텐마, 화이트비치 등 7개소이다.

휴전협정체결 이후, 미군은 서서히 감소했다. 주일미군은 1953년 7월 시점에서 3개 사단 약 25만 명, 일본본토에서 오키나와, 한국을 포함한 극동지역에 제5공군을 중심으로 한 약 2,500기의 극동공군과, 제7함대가 배치되어, 토지면적은 여전히 약 13.53만 ha였다. 주일미군은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휴전협정 체결후 1954년에는 약 21만, 1956년에 약 12만, 1960년에 약 4.6만으로 감소되었다. 육군 전투부대는 1957년에 모두 철수하였고 약 6,000명이 잔류하여 군수분야에 근무하고 있었다. 기지는 1954년에는 약 730건이었는데, 1957년 6월 21일 기사-아이크 성명에 의해 주일육군부대 철수와 함께, 1957년 3월 말에 458건, 토지 3.36만 ha로 크게 감소했다. 1960년에는 약 240건으로 서서히 감소했다. 이와쿠니 기지에는 영연방 공군과 미 공군이 6·25전쟁 발발 시에 전개하고 있었으나, 1954년 12월 이후는 해군기지로 전환되어 해병대가 전개했다. 1952년 7월에는 하네다 공항이 반환되어 1954년 7월에는 항공자위대가 발족되면서 항공기지 이관이 추진되었다. 일본본토에서의 미군 감축과 병행해서 오키나와에서는 1953년에 '토지수용령'이 발표되고 군용지 수용이 시작되면서 1956년부터 오키나와로 군사력 이동이 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토 복귀·기지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지문제가 발생하여, 안보조약 개정을 포함하여 정치문제로 확대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미일관계가 재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미일안보조약 개정 반대운동이 발생하면서 미일양국

은 각각의 타협점,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GHQ는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됨으로써 폐지되고, 1952년 7월에는 유엔군사령부도 동경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자마에 남아있게 되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 시 미일안보조약의 문제점으로서, 유엔헌장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주일미군의 일본방위에 의무규정이 없다는 점, 일본정부와 협의 없이 주일미군의 자유로운 활동, 내란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는 점, 조약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계속했다는 점, 행정협정에서 일본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1960년에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수정했다.

5. 맺 음 말

일본에서 미 군사력과 기지전개에 6·25전쟁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① 6·25전쟁을 교훈으로 지휘통신기능, 탄약고, 저유소의 정비를 실시, 전쟁대응을 가정하여 즉각적 대비태세 및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했던 점. ② 6·25전쟁 휴전협정체결과 함께 주일미군 가운데 육군은 점차 축소되고 미 본토에서 긴급히 전개한 부대를 접수하기 위한 군수보급창 기능을 가나카와 현을 중심으로 축차적으로 집중했다는 점. ③ 해군전력에서는 아즈키 항공기지를 포함한 요코스카 기지를 강화하여 미 제7함대 지원을 비롯한 지원체제를 확충하고, 사세보기지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 ④ 공군전력에 있어서는 요코다, 가테나 등 항공기지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면서 항공자위대에 방공임무를 이관했다는 점. ⑤ 오키나와에서는 미국정부의 통치아래 다시 대규모 기지가 수용되고, 혼슈에서는 기지가 축소되면서 각 병과별 기지기능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는 점. ⑥ 일본정부는 주일 미군기지를 관장할 정부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국내문제에

대응했다는 점 등이다.

6·25전쟁 휴전이후 일본에서 미군사력 및 기지전개는 1950년 1월의 '서태평양 방위선'의 재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냉전종결 이후에도 공산세력의 침투는 없어졌어도, 휴전선상에서 휴전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력이 증대되고 있어 그 골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25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을 고려해 보면, 1950년대는 전반적으로 과도기적 단계이며, 6·25전쟁 발발이 일본에서의 미군사력 및 기지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일본에서 미군사력 및 기지전개를 결정하는 요소는 당시 미소간의 각축으로 대표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 미국의 안보정책, 일본의 정치, 군사, 경제정세이나, 그 중에서도 6·25전쟁이 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원고투고일 : 2005. 2. 24, 심사완료일 : 2005. 3. 26)

주제어 : 한국전쟁, 주일미군기지, 미·일안보조약, 군사적 봉쇄, 억지전쟁

K C I

朝鮮戦争と日本

— 日本における米軍戦力と基地の展開 —

芦田 茂

(日本防衛庁 防衛研究所)

目次

はじめに

1. 被占領期一敗戦から朝鮮戦争の勃発まで(45年8月～50年6月)
2. 朝鮮戦争対応期—朝鮮戦争勃発後から日米安保条約発効まで(50年7月～52年4月)
3. 初期日米安保条約関係期—日米安保条約発効から新日米安保条約発効まで(52年5月～60年6月)

おわりに

はじめに

本稿の目的は、日本の敗戦を起点として1960年に改定されたいわゆる日米安全保障条約(以下、「日米安保条約」という)¹⁾発効まで約15年の期間において、

1) 正式な名称は、「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安全保障条約」であり、51年9月8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において対日講和条約締結と同日に締結され、52年4月24日発効した。さら

沖縄を含めた日本での米軍戦力の動向及び基地の変遷について朝鮮戦争の影響との関連を主眼に研究することにある。本稿の内容は、米軍駐留の根拠規定をもとに以下の3つの期間に区分して行う。すなわち、1) 敗戦から朝鮮戦争の勃発まで(1945年8月～1950年6月)、2) 朝鮮戦争勃発から日米安保条約発効まで(1950年7月～1952年4月)、3) 日米安保発効から改定された日米安保条約発効まで(1952年5月～1960年6月)とする。

本稿の趣旨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1945年以降、米国が闘った、本格的なそして新たな様相をおびた朝鮮戦争は、対日講和条約締結を加速し、51年9月締結の日米安保条約の内容を規定し、54年2月に国連と日本政府間の地位協定を締結させた。占領目的達成のための日本での米軍戦力及び基地の多くは、図1に示す、1950年1月のアチソン米国务長官による「不後退防衛線」²⁾を基本とし、朝鮮戦争の教訓及び米国国家安全保障会議戦略文書NSC68³⁾を反映しつつ、本格的な戦争に対処すべく陸海空戦力の骨格部分が規定されていった。すなわち、朝鮮戦争勃発以降において、日本における米軍戦力及び基地の展開の多くは、本稿では、米国の政策及び日米安保条約などの具体化されたものと考えている。

朝鮮戦争の研究には、戦争そのものの推移、米国を中心に国際政治学の観

に、改定された日米安保条約、正しくは「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は、60年1月9日に締結され、同年6月23日に発効した。なお、この改定された条約は、70年に改定の時期を迎え、自動継続され今日に到っている。

- 2) 「不後退防衛線(defensive perimeter)」は、「アチソンライン」あるいは「西太平洋防衛線」とも言われているが、これは米国が共産主義の拡大を阻止するという「封じ込め(containment)」に際して用いた防衛線のひとつであり、50年1月22日でのナショナルプレスクラブでのアチソン演説に先立ち、米国国家安全保障会議戦略文書NSC48/2により採択された内容を反映したものである。なお、防衛線は、米国が軍隊を駐留させている戦略線と本稿ではみなしている。
- 3) 本戦略文書は、国務省の政策立案委員長ポール・ニッツェによ5年3月末に作成され、軍事的、経済的な力に重点を置き、対ソ外交の可能性を否定して、平和時といえども、米国GNPの20%が国防予算にふり向けられるべきとしたが、適用されたのは朝鮮戦争勃発の後のことである。

点からの政治プロセス、米
 国、ソ連及び中国の政府動
 きなどを中心に実証的な研
 究などが多くある⁴⁾。ある
 いは、米軍基地あるいは戦
 後の被占領期の国内情勢を
 取り扱ったものも多くある
 が⁵⁾、朝鮮戦争との関連を
 考慮したものは少ない。本
 研究は、米政府での政治プ
 ロセスを踏まえ、日本にお
 ける米軍の動きを、「不後退
 防衛線」に焦点をあてて、実
 証的に確認することにある。



<図1> 不後退防衛線

従来、この分野の研究は少

なく、朝鮮戦争との関連を考慮しないもの、あるいは考慮しても、イデオロ
 ギー的な観点に偏り、一部の事象に焦点を当てたものが多かった⁶⁾。本研究で
 は、日本の敗戦から15年間の期間にわたり、米国の対日政策を含めた東アジ
 ア戦略の変遷を踏まえつつ、米国国家安全保障会議文書等との関連のもとに、
 米軍戦力の動向及び基地の変遷、すなわち、日本における米国の東アジア戦

4) 信夫清三郎 『朝鮮戦争の勃発』(福村叢書、1969年)、永井陽之助『冷戦の起源—戦後アジアの国際環境—』(中央公論社、1978年)、大森実 『朝鮮の戦火(戦後秘史8)』(講談社文庫、1981年)、小此木政夫 『朝鮮戦争』(中央公論社、1986年)、和田春樹 『朝鮮戦争』(岩波書店、1995年)、赤木莞爾 『朝鮮戦争』(慶応義塾大学出版会、2003年)など。

5) 占領軍調達史編さん委員会 『占領軍調達史—占領軍調達の基調—』(調達庁総務部調査課、1956年)、時事問題研究所編 『米軍基地 誰のためのものか』(社団法人時事問題研究所、1968年)。

6) 基地問題調査委員会 『軍事基地の実態と分析』(三一書房、1954年)、佐藤昌一郎 『地方自治体と軍事基地』(新日本出版社、1981年)、山崎静雄 『史実で語る朝鮮戦争協力の全容』(本の泉社、1998年)。

略の実情を検証するものである。

今日、東アジアにおける米軍の再配置が議論されているが、本研究は、朝鮮半島を含め、東アジアにおける安全保障上の、今日の問題あるいは将来の戦略環境を考えるに際し、意義のあるテーマと考えられる。なお、ここでは、本研究の目的及び紙面の都合上、米国による日本の占領政策、米軍基地問題、日本の朝鮮戦争への寄与、日本の安全保障施策、日本の再軍備などについては、本稿の目的に沿う最小限度の記述に留め、細部を除外した。

1. 被占領期一敗戦から朝鮮戦争の勃発まで

1945年8月28日、日本の敗戦に伴い米先遣部隊が厚木飛行場に進駐した。次いで軍隊の完全な武装解除及び軍需産業の禁止などを行うため、マッカーサー元帥を最高司令官とする連合国軍(以下、「占領軍」という)が日本の各地に進駐した。占領軍の中核は、もとより米軍であった。

占領軍進駐を含めたすべての占領の根拠は、旧大日本帝国の降伏文書及び連合国軍最高司令官の権限などにあった⁷⁾。占領軍に対し、日本政府の設立した公的な機関である特別調達庁⁸⁾が占領軍の必要とする物品・サービスの取得業務など占領軍へのさまざまな対応を行い、間接統治の管理事務を処理することになった。

占領目的達成のため、占領軍は、旧日本軍が所有し使用したすべての財産

7) 連合国軍最高司令官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元帥の日本進駐に関する命令書、米戦艦ミズリー号上で調印した降伏文書、天皇の詔書、日本陸海軍に対する一般命令など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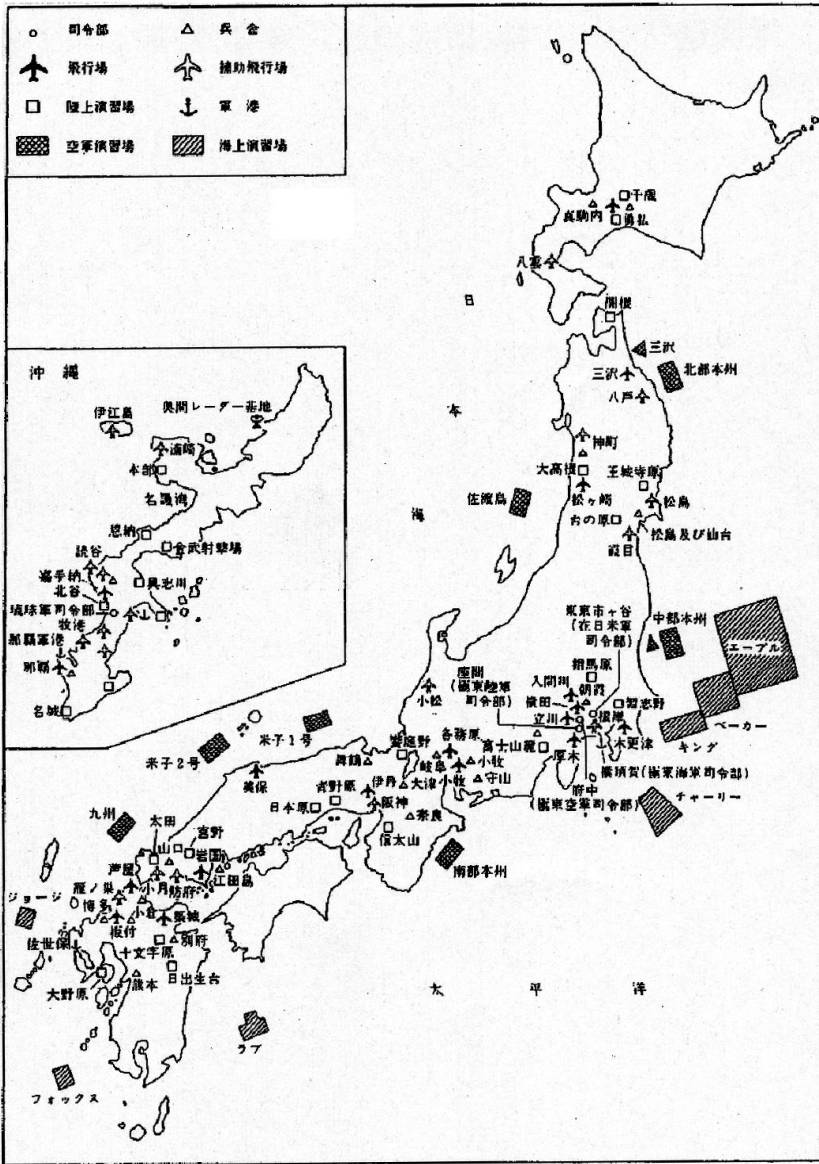
8) 47年4月26日法律第78号「特別調達庁法」の公布により、占領軍の必要とする調達のため、日本政府は、一元的調達機関公法人特別調達庁を設立した。なお、特別調達庁は、行政協定調印を受けて、52年4月1日付で調達庁に改称され、引き続き在日米軍の調達業務を継続し、さらに、62年11月1日には防衛施設庁として発足し、今日に至っている。

及び軍需産業はもとより民有資産に到るまで接収を行った。接収の件数は、沖縄⁹⁾を除き約4千件、土地面積では約14万ヘクタールにわたっていた。占領軍の数は、1945年の進駐当初、約40万人、翌46年には半減して約20万人、1950年の朝鮮戦争勃発前には約11.5万人へと変化した¹⁰⁾。占領軍としての基地展開の概要を図2¹¹⁾に示すが、沖縄を除いて旧軍が使用していた基地の中から占領軍の基地が選定され、戦力が展開したと考えてよい。なお、占領軍進駐以降、軍事及び治安上、日本国内で軍事的対処の事案は皆無であった¹²⁾。このため、上記に示したように、陸軍戦力の急速な減少をもたらした。

占領軍は、沖縄を含め、日本には米陸軍第8軍(4個師団)及び独立第29歩兵連隊から構成される陸軍戦力が、全国都道府県の各地、約70箇所を中心に展開し、占領業務に従事した。海軍が使用した基地は横須賀と佐世保のみであった。軍政上の命令の伝達等は、それぞれ、軍の機構を通して日本側地方行政機関へ行われたが、横須賀のみ特別地区として駐日米海軍の所管とされ、横須賀海軍基地司令部内に軍政部がおかれた¹³⁾。

当時の米軍の状況は、45年以降50年までの間、全般的には世界大戦の戦時体制から縮小の過程にあり、過渡的な段階であった。そして、陸軍及び海軍の規模・予算の縮小が継続的に推進された。空軍戦力においても、既存組織の縮小を行ないつつ、戦略空軍の強化により、その戦力縮小を補填する政策

-
- 9) 沖縄の場合は、1945年に米軍の上陸作戦が展開され、占領以降は、県民は収容所生活を強いられ、直接統治が行なわれた。また、1949年10月の中華人民共和国の成立と蒋介石政権の台湾に存続などにより、米軍の戦力及び基地の展開の様相は、本土とは異なり、東アジアの戦略環境を直接反映する状況となった。
- 10) 竹前栄治・中村隆英監修『第1巻GHQ日本占領史序説』(日本図書センター、1996年) 28頁。
- 11) 吉田裕『戦後改革と逆コース 日本の時代史26』(吉川弘文館、2004年) 90頁、本図は52年現在のものであるが、占領軍の展開は、北海道での空軍戦力の展開を除いて、50年時との大きな差異はないと考えてよい。
- 12) 47年の2.1ゼネスト中止に代表されるような労働争議、政治闘争等があったが、占領軍の出動が必要なものはなかった。
- 13) 基地問題調査委員会、『軍事基地の実態と分析』、27頁。



<图2> 米軍基地の分布(1952年)

を推進しつつあった。

米陸軍では、九州に第24師団、関西に25師団、関東に第1騎兵師団、東北・北海道に第7師団、沖縄に第29歩兵連隊、約4ヶ師団、図2に示したように、約10万人がそれぞれ駐留し、主として行政的な任務を担った。各部隊の充足率は、全般的に低かった。このため、戦車・火砲・重火器などの充足率も低く、保有兵器の多くは進駐当時のものが大半であり、規模の小さい訓練を中心に行い、機甲化した部隊は存在しなかった¹⁴⁾。

米海軍は、接收した旧海軍の横須賀・佐世保基地に限定して、約6千人規模の人員、極めて限定された弾薬保有量により、海軍戦力を展開していた。50年6月においては、5隻の艦艇からなる、水陸両用任務をもったタスクフォース90と、17隻の支援・掃海の任務をもった17隻の艦艇から構成される、タスクフォース96が、駐留していた¹⁵⁾。これとは別に、フィリピンには、米第7艦隊が位置していた。すなわち、米海軍は、2個の空母群、潜水艦群などから構成され、空母・航空部隊・巡洋艦・潜水艦・輸送艦などを保有していた¹⁶⁾。さらにこれらに加えて、空母1隻を中核とした、英連邦の海軍戦力も、アジア地域に展開していた。

米空軍も、図2に示したように、沖縄・板付(福岡)・伊丹(大阪)・名古屋・東京・埼玉・千葉・三沢など主要な飛行場に、航空戦力を展開していた。また、青森から沖縄まで、主に山頂を中心として、レーダーサイトを各所に設置し、北海道を除き沖縄から本州三沢までレーダーサイト及びジェット戦闘機により、空における警戒監視及び防空の体制を整えた。加えて、航空基地には各種の爆撃機・偵察機・輸送機などを配置して、偵察、攻撃、輸送など各種の任務を行っていた¹⁷⁾。岩国には、オーストラリア空軍の海上航空機の

14) フランク・コワルスキー 『日本再軍備 米軍事顧問団幕僚長の記録』(勝山金次郎訳、サイマル出版、1969年) 20頁。

15)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 45.

16) *Ibid*, p. 47.

基地も、位置していた¹⁸⁾。第5空軍だけに限っても、49年12月末の時点で、航空機総数約500機、約1万6千人の軍人を擁していた¹⁹⁾。加えて沖縄・フィリピン・グアムに部隊を展開していた。

沖縄においては、49年10月の中華人民共和国の成立を踏まえ、アリューシャン・日本・沖縄・フィリピンの防衛線に実体を与えるため、米軍は基地整備を推進した。すなわち、50年には、5,800万ドルの経費を投入して、基地用地を収用し、東アジアにおける米国の軍事拠点として空軍機能の拡充を中心に、陸軍・空軍基地、港湾の整備にも着手した²⁰⁾。

1945年8月の敗戦から1950年6月25日の朝鮮戦争の勃発まで約5年間には、占領軍の戦力と基地の展開は、占領目的の達成が主目的であるが、東アジアにおける米国の安全保障政策の一端として日本の防衛任務を担っていた。

朝鮮戦争勃発前における日本における米軍戦力と基地の展開について、総じていえば、以下のように考えられる。占領の中核としての連合国軍最高司令部(以下、「GHQ」という)と同様に、各軍の司令部が、東京及びその周辺に位置していた。既に日本には、すべての軍種が活用できる港湾・飛行場・演習地、交通・運輸のインフラのすべてであった。その豊富で質的にすぐれた労働力・工業力と政治的な安定を考慮すると、戦争の遂行をする作戦基盤に、短期間で変容できる条件が整っていた。これが意味することは、図1の50年1月のアチソン米国務長官が示した、米国の「不後退防衛線」に象徴される戦力の実体であり、米国家安全保障会議による対ソ戦略を規定する米国家安全保障会議戦略文書NSC48/2に準拠し、対ソ戦争計画を反映したものと言って

17) Narrative, Headquarter Fifth Air Force APO710, 29 April 1950, "Fifth Air Force Historical Data, Semi-Annual Report 1 July-31 December, 1949 Volume 1."

18) *Ibid.*, p. 56.

19) Narrative, Headquarter Fifth Air Force APO710, "Fifth Air Force Historical Data, Semi-Annual Report 1 July-December 31, 1949 Volume 1." なお、50年1月の時点では、北海道には図2に示される航空基地の展開はなかった。

20) 信夫清三郎、『朝鮮戦争の勃発』(福村叢書、1969年) 15頁。

よい。安全保障政策上は、米務省の政策立案委員長のジョージ・ケナンの政治的な封じ込めがベースになっていた。米国は欧州防衛を主正面としつつ、アジアでは小規模な軍事衝突・紛争への対応を想定し、1950年当初、占領軍は、GHQ及び極東軍司令部を頂点として各種の司令部機構を有し、各軍の戦力と基地を展開をした。ここで留意すべきことは、朝鮮戦争勃発前までは、米国の国防予算は、第2次世界大戦以降、継続して減少し、各軍とも予算の制約を受け、占領軍の人員・装備等の充足率、訓練の規模などは限られたものであり、小規模の紛争には対応できる態勢を有していても、即応の態勢のもとに本格的な戦争を行ない得る状況にはなかった²¹⁾。しかし、東アジアに位置する米軍の展開が、朝鮮半島有事に対しても制約こそあれ対処できる態勢を敷いていたことが判る。

2. 朝鮮戦争対応期

50年6月25日の朝鮮戦争勃発にはじまり日米安保条約発効の52年4月28日までの間、1年11ヶ月の間、占領軍は朝鮮戦争を闘う国連軍に変容した。米国政府はこのため、現実的かつ新たな日米関係を模索し、日米安保条約を発効させることとなった。この期間には、米国国家安全保障会議戦略文書NSC68の適用に代表されるように米国の軍事安全保障政策の大転換²²⁾、講和条約締結・日米安保条約締結などのプロセスに対する日本の対応、アジア各国の反応、警察予備隊の本格的整備などは、顕著な変化が生じた。

21)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pp. 42-45.

22) 米国の国防予算は当初約130億ドルレベルであったが、朝鮮戦争勃発を契機として米国国家安全保障会議戦略文書NSC68の勧告を緊急の予算の問題に変え、当該年度のそれは、約500億ドル近くまで急増した。

米国の朝鮮戦争への対応に係る伴う日本における米軍の活動は、GHQの権限により行われ、日本政府はGHQに協力する形態をとった²³⁾。軍需物資の取得及び基地の維持整備など、政府側協力の多くの部分は、特別調達庁が所掌することになった。

米国政府は、朝鮮戦争の勃発を契機に、戦争を遂行しつつ新たな軍事態勢の模索をはじめた。すなわち、この期間は、新たな日米関係という文脈では過渡期であり、米国政府は朝鮮戦争を通して在日米軍及び基地の展開を見直し、51年9月8日には日米安保条約が締結され、行政協定が52年2月28日に調印され²⁴⁾、これらは、52年4月28日に発効することになった。これは、従来の戦力縮小から、限定戦争のシナリオを前提とした戦争遂行のための態勢移行であり、日米安保条約・行政協定設定のプロセスのなかで、日米双方が軍事的に必要な態勢が確定したことでもある。日米安保条約は、主権を回復した日本政府が米軍駐留に対する法的根拠を付与したことに最大の意義がある。なお、日本政府は主権回復に伴う軍事制度上の改革は行わず、漸進的な防衛力の整備を進めることとした²⁵⁾。以下、米軍戦力及び基地展開の主要部分に焦点を当てることとする。

占領軍は朝鮮戦争を遂行する国連軍へ、そして日本における占領軍基地は朝鮮戦争遂行のための基地へと変容し、防空をはじめとした防衛体制が強化された。GHQの命令のもと、占領軍は戦力基盤の整備を行うべく既存基地の

23) 吉田総理は、50年7月14日の第八臨時国会の姿勢方針演説にて「できる範囲においてこれ(国際連合の行動)に協力することは極めて当然のこと」と述べているが、政府は、朝鮮戦争勃発以降におけるGHQの動きに対し、異議を唱えるような行動はみられない。

24) 正しくは、「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安全保障条約第3条に基づく行政協定」であり、岡崎外務大臣及びラスク國務長官により署名された。なお、本行政協定は、日米安保条約の改定に際して、地位協定、すなわち、正しくは、「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第6条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地位に関する協定」に替えられた。

25) 日米安保条約の前文においても、「(日本国が)自国の防衛のために漸増的に自ら責任を負う」旨の記述があり、わが国の防衛のための予算は、53年度以降、漸増している。

拡張、新たな地積の接収などを急いだ。新たな地積の接収は、進駐当初に接収した基地の不備欠落を補うものが大半であった。51年に入り、安保条約締結の見通しと行政協定締結の基本枠が明確になることにより基地の安定化への骨格が定まった。

GHQが、陸軍戦力を朝鮮半島に割いたため、日本における米軍の人員は一時的に減少した。このため、米政府は、陸軍戦力を米本土から投入し、日本での規模を約20万人レベルに増加させた。米本土からの部隊は、既に接収している訓練・演習場を用いて各種の訓練を行ってから朝鮮半島に展開させた。兵站・補給廠機能の強化のため、横浜に在日兵站司令部が設置された²⁶⁾。アジア・太平洋地域海空戦力を沖縄、九州、関東地区に集結させ、戦力を強化した²⁷⁾。海軍は、空母をはじめとして海軍部隊の朝鮮半島への展開のため、横須賀及び佐世保を中心に基地を強化した²⁸⁾。空軍は、既存飛行場のジェット化対応を行ない、北海道を警戒監視の領域内に含むと共に、主要な航空基地を中心として地上火器を配備して防空を強化した²⁹⁾。

この期間において特記すべき事項は、兵員及び軍需物資の海上輸送のため、新たに門司港が接収されたこと、柏通信所（千葉県）、上瀬谷通信施設（神奈川県）など通信所が50年から51年にかけて約10箇所新たに使用開始され、指揮通信機能を強化したこと、佐世保及び横須賀地区を中心に弾薬庫、貯油所及び倉庫が強化されたことなどである³⁰⁾。なお、これらは旧軍が使用していた

26) 占領軍調達史編さん委員会、『占領軍調達史—占領軍調達の基調—』590頁。

27) 新里恵二、田港朝昭、金城正篤、『沖縄県の歴史：県史シリーズ47』（山川出版、1972年）224頁。

28) 占領軍調達史編さん委員会、『占領軍調達史—占領軍調達の基調—』576～577頁。佐世保市立図書館内佐世保市郷土研究所、『佐世保のあゆみ』（佐世保市明治百年記念事業協賛会、1968年）161～164頁。大森実『講和の代償（戦後秘史9）』（講談社文庫、1981年）206～211頁。

29) 山崎静雄、『史實で語る朝鮮戦争協力の全容』238～239頁。

30) 時事問題研究所編、『米軍基地：誰のためのものか』186～191頁。横須賀地区では、田浦送油施設、小柴・鶴見・横浜貯油施設、衣笠・池子弾薬庫、東京の多摩弾薬庫、広島地区の広・秋月・川上弾薬庫、北九州の山田弾薬庫、佐世保地区の赤崎・庵崎・横瀬貯油所、佐世保弾薬補給所、針尾島弾薬集積所などが挙げられる。ただし、通信所の新規使用開始と朝鮮戦争との因果関係は、必ずしも明確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

もので、占領軍が既に接收したものであった。

基地整備の代表例として厚木基地がある。旧海軍航空基地を米陸軍が独自に管理していた厚木基地は、50年12月1日より米海軍基地として正式に発足し、西部太平洋艦隊下の機動部隊である第7艦隊搭載の艦上機の一大拠地となった³¹⁾。

日本における米軍戦力および基地の展開は、51年7月から開始された朝鮮戦争休戦協定のプロセスも受け、当初の占領目的達成のものから共産勢力の軍事的な封じ込めに必要な戦力基盤確保に転換し、日米安保条約が機能していった。このため米国政府は、日本における米軍の活動の自由と東アジアにおける新たな安全保障戦略の具体的展開に必要な基地の安定的確保を日米安保条約で規定し、行政協定により在日米軍基地の位置づけの細部を規定した。すなわち、条約の第1条で、「アメリカ合衆国の陸軍、空軍及び海軍を日本国内及びその付近に配備する権利を、日本国は許与し」、「この軍隊は、極東における国際の平和と安全の維持に寄与し」と規定したのである³²⁾。

日米安保条約を受けた行政協定により、米軍基地の位置づけが更に明確になり、加えて、岡崎外務大臣とラスク米大統領特使との交換公文³³⁾により合

31) 時事問題研究所編、『米軍基地 誰のためのものか』44～51頁。

32) 51年の対日講和条約締結時、沖縄は引き続き米国の施政権下におかれ、それは72年5月まで続いた。

33) 概要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1) 原則として、陸、空軍は都市地域外に駐留することとし、海軍はその各々の使命に合致した最小限の港湾地区に集中すること、2) 継続使用される特定の財産を決定するに際しては、以前、日本軍隊により使用されていた財産ならびに日本政府所有の財産を使用することにつき優先的な考慮を払うこと。3) 以前、学校、図書館等に使用されていた公共財産は可及的速やかに返還する。合衆国軍の為の病院の必要性については特別な考慮を払うこと。4) 公共及び個人の娯楽及び社交施設は、合衆国軍の移転に伴い、出来るだけ速やかに返還する。5) 個人住宅は、空家となり次第、早急に返還する。6) 港湾並びに倉庫施設は可及的速やかに返還する。合衆国軍の補給の為に必要な港湾並びに倉庫施設は、日本国の商業上の必要性和海運発展との緊密な調整と相まって決定されること。7) 陸上及び海上の演習場は農民及び漁民の利害関係を十分考慮に入れた上で提供する。なおこれらを警察予備隊並びに海上保安隊に共同使用させる。8) 民間航空用飛行場の返還並びに民間航空の増大しつつある必要性及び国際空港運営に寄与する為の飛行場の共同使用について早急な考慮が払われること。

意され、接収財産の減少施策が合意された。52年4月28日の対日講和条約・日米安保条約・行政協定発効以前における、占領軍による接収財産は2,824件、土地面積13.5万ヘクタールであったが³⁴⁾、これが今後逐次減少することになるが、正味の軍事的な態勢は維持されたと考えられる。

3. 初期日米安保条約関係期

この期間は、52年4月28日の日米安保条約発効から、60年6月23日の新安保条約発効までのやく年間である。占領軍は在日米軍に、占領軍の基地は在日米軍基地に、それぞれ替わった。すなわち、基地については、「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第3条に基づき、行政協定の第2条において「合衆国は、相互協定及び安全保障条約第6条に基づく日本国内の施設及び区域の使用を許される」と規定された。

日米安保条約締結時、国連軍の行動も許容するため、吉田首相と米国防務省アチソン長官との間で、引き続き国連軍の日本での活動を認める合意が成された³⁵⁾。朝鮮戦争休戦協定締結に伴い、54年2月19日、日本国と国連の間で地位協定(the UN Japan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が締結され、国連軍のメンバー国の日本領内の行動根拠を与え、在日米軍基地の使用が許容された³⁶⁾。現在、国連軍が使用できる施設は、横田・横須賀・座間・佐世保・嘉手納・普天間・ホワイトビーチの7箇所となっている。

34) 時事問題研究所編、『米軍基地 誰のためのものか』166頁。

35) 正しくは、「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安全保障条約の署名に際し吉田内閣総理大臣とアチソン国防長官との間に交換された公文(書簡)」であり、1951年9月8日サンフランシスコで合意され、翌年4月28日に発効した。

36) 正しくは、「日本国における国際連合の軍隊の地位に関する協定」であり、1954年6月1日(条約第12号)に発効した。

朝鮮休戦協定締結の後、米軍の戦力は徐々に減少した。在日米軍戦力については、53年7月の時点で、3個師団、約25万人、日本本土から沖縄・韓国を含め極東地域に第5空軍を中心とした約2,500機の極東空軍と米海軍第7艦隊が配備され³⁷⁾、これらの展開のために必要な土地面積は、沖縄を除いて依然として約13.53万ヘクタール・レベルであった。在日米軍戦力は、沖縄を除き、休戦協定締結後の54年には約21万人、56年約12万人、60年約4.6万人へと推移した³⁸⁾。陸軍の戦闘部隊は57年にすべて撤退し、約6千人規模の後方部門のみ引き続き常駐した。基地の件数は、54年には約730件が、57年6月21日の岸・アイク声明による在日米陸上部隊の撤退等に伴い、57年3月末で458件、土地3.36万ヘクタールに大きく減少した³⁹⁾。さらに60年には約240件に減少した⁴⁰⁾。旧海軍航空基地であった岩国基地は、英連邦空軍と米空軍が朝鮮戦争勃発時に展開していたが、54年12月以降は、米海軍海兵隊の展開基地となった⁴¹⁾。52年7月には羽田空港が返還され、54年7月には航空自衛隊が発足し、航空基地の移管が進んだ。図3に、この間の米軍基地の展開の概要を示しているが、米陸軍の展開および米空軍基地の縮小、指揮通信機能・燃料・弾薬施設などの強化に代表されるように各軍の機能集約化が確認できる⁴²⁾。日本本土での戦力の縮小と併行して、沖縄では53年に「土地収用令」が公布され⁴³⁾、軍用地の収用が始まるとともに56年から沖縄への戦力の移駐が開始された⁴⁴⁾。GHQは、

37) 草地貞吾、坂口義弘『自衛史』(日本防衛調査協会、1980年) 251頁。

38) 草地貞吾、坂口義弘『自衛史』 249頁。

39) 時事問題研究所編、『米軍基地 誰のためのものか』 176頁。

40) 朝雲新聞編集局、『防衛ハンドブック(昭和50年版)』(朝雲新聞社、1975年) 147頁。

41) 山口県編集、『山口県史 史料編 現代2』(大村印刷㈱、2000年 710～715頁。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出版局、『総点検 在日米軍基地』(光陽印刷㈱、1991年) 137頁。

42) 時事問題研究所編、『米軍基地 誰のためのものか』 186～186頁。なお、この図は1968年のものであるが、朝鮮戦争休戦後の、主要な基地はすべてこれに含まれていると考えてよい。

43) 新里恵二、田港朝昭、金城正篤、『沖縄県の歴史 県史シリーズ47』 227頁。1951年での沖縄の米軍基地面積は1.2万ヘクタールであったものが、1953年には1.7万ヘクタールに増えた。

44) 沖縄では、1951年4月29日に日本復帰期成会が結成され、基地用の土地の収用に関連して、

52年4月に日米安保条約の発効により廃止され、57年7月には米極東軍司令部が廃止され、国連軍司令部も東京からソウルに移され、国連軍の兵站司令部のみが座間に残された⁴⁵⁾。

米軍基地については、基地問題が表面化し、日米安保条約改定を含め政治問題へと発展しつつ⁴⁶⁾、日米関係の再調整が50年代の半ばからはじまった。総じて、日米安保条約改定の反対運動が発生しつつも日米双方の政府がそれぞれの妥協点・解決策を模索し、見出していくことになる。対日講和条約締結時の日米安保条約には、国連憲章との関連で不明確なこと、在日米軍の日本防衛上の義務規定がないこと、日本政府との協議なしでの在日米軍の自由な行動、内乱への対処が許容されていること、条約が無期限に継続すること、行政協定において日本側に不利な内容があることなどが問題点としてあり⁴⁷⁾、これらを60年の日米安保条約改定に際して是正した⁴⁸⁾。

この期間において、53年7月27日の朝鮮戦争休戦協定締結を契機として、日本においては、米軍戦力の低減及び基地数の減少が顕著であるようにみえる。しかし、朝鮮半島に展開する韓国軍・在韓国連軍の存在は当然のことながら、朝鮮戦争時の戦時体制から平時の体制への移行、米国国家安全保障会議戦略文書NSC68を背景とした米軍戦力の再編など考慮するなら、日本における米軍戦力及び基地の展開においては、実質的には、即応態勢及び継戦能力の維持のもとに、本格的な戦争を行ない得る態勢を構築し、維持しているものと考えられる。

本土復帰と基地反対の運動もはじまった。

45) 防衛施設庁史編さん委員会、『防衛施設庁史第巻各論編—第2部—』(防衛施設庁総務部総務課、1985年) 348頁。

46) 米軍基地問題は、当初、一部の地域での経済問題であったが、52年に入り徐々に政治問題化し、全国的な政治問題に発展することとなった。政治問題は、60年5月から6月の安保騒動で頂点に達したが、条約が発効し、岸首相が退陣を声明し、事後、沈静化した。

47) 多田実、『日米安保条約』(三笠書房、1982年) 60頁。

48) 名称も変更し、政治及び経済を含めた幅広い協力条約とし、国連憲章との関連をより明確に規定した。

おわりに

日本における米軍戦力と基地の展開に朝鮮戦争が与えた影響について、以下のとおりであると考えられる。1) 朝鮮戦争の教訓を踏まえ、図3に示したように指揮通信機能、弾薬庫・貯油所の整備を行い、戦争対応を想定した即応の態勢及び継戦能力を強化したこと、2) 朝鮮戦争休戦協定の締結に伴い在日米軍のうち、陸軍戦力の戦闘部隊は逐次縮小し、米本土から緊急に展開する部隊の受け入れのための兵站補給廠機能を神奈川県地区を中心に逐次集約化したこと、3) 海軍戦力においては、厚木航空基地を含め横須賀基地の機能を強化して米第7艦隊支援をはじめとした支援態勢を拡充し、佐世保基地の基地機能を強化したこと、4) 日本政府は、在日米軍基地を所掌する政府機関を設けて、積極的に米軍基地問題の対処に取り組んできたこと、5) 沖縄においては、米国政府の統治のもと、新たに基地用地を接收し、本州での基地数を縮小させつつ各軍種の基地機能を合理化したこと、そして、6) 日本の防衛に関しては、自衛隊設立後、防衛力の整備の進捗に合わせて逐次任務を移管し、米軍戦力の効率化を指向したことここに集約される。

朝鮮戦争休戦以降における日本での米軍戦力及び基地の展開は、日米安保条約の発効及び米国国家安全保障会議戦略文書NSC68を背景として、図1に示した50年1月の「不後退防衛線」の再定義と考えられる。冷戦終結以降においても、共産勢力の浸透はなくなっても、38度線での休戦状態は継続し、中国の国力が増大し、その基本的な枠組みが依然と継続しているといえる。朝鮮戦争勃発以降の半世紀以上の期間のなかで、東アジアにおける米軍を存在を考えると、50年代全般が過渡的な段階であり、朝鮮戦争の勃発は、日本における米軍戦力及び基地の展開に対して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といえる。もとより、日本における米軍戦力及び基地の展開を決定する要素は、当

時の米ソの角逐に代表される世界情勢と東アジア情勢、米国の安全保障政策、日本の国内情勢であるが、わけても朝鮮戦争の及ぼした影響は極めて大きかった。

KCS I

<ABSTRACT>

The Korean War and Japan
— the US Forces and Military Bases in Japan —

Shigeru Ashida

This paper addresses the US Forces and Military Bases in Japan from 1945 to 1960 focusing on the impacts by the Korean War. The outbreak of the war, triggering the Peace Treaty and the Japan-US Security Treaty, had fundamentally redefined the strength of the US Forces and deployment in Japan. The Japan-US Security Treaty signed in 1951 had changed the US Occupation Forces into the deployed ones commissioned for keeping military balance in the East Asia and Deterring War. This paper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Forces in Japan transforming from the occupation forces, the UN Forces waging the war, to readiness-forces, and development of the Military Bases with three periods of occupation, transient and initial alliance periods. It assumes the close correlation of the US Government Policies reflecting of the 'Defensive Perimeter' announced by Dean Acheson, Secretary of the States Affairs in January 1950, the US National Security Counsel documents and so on.

The paper argues that the outbreak of the war had been so critical in terms of the US Security Policy of Political Containment that the US Forces and Military Bases in Japan were totally redefined militarily to contain the growth of communism and seek for deterring another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Asian Theater. Referring to the Japan-US Security issued in 1951, the US Commitment to prevent the war including

Japan's Security Policy as the US Partner has been reflected on the Strength of the US Forces and Deployment of Military Bases in Japan. An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Japan has continuously supported the US Commitment. The Fundamental Military Framework in the East Asia has been formed by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presently still remains irrespective of the End of Cold War.

Key Words : Korean War, US Forces and Military Bases in Japan, Japan-US Security Treaty, Containment, Deterring War

K C I